

한국 경제지리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손 용 택*

I. 들어가며	V. 맺음말
II. 한국의 경제지리학 발달과 성찰	<참고문헌>
III.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	<국문요약>
IV. 『한국경제지리학회지』 논문분석과 연구동향	

I. 들어가며

경제지리학이 모학문(母學問)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 독립한지 약 1세기가 넘었고, 이른바 패러다임의 변화를 여러 차례 겪었다. 처음에는 주로 상품의 종류나 생산지 및 거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던 상업지리 시대로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취급하던 시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지역성이나 공간조직을 경험적, 실증주의적으로 취급하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¹⁾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지리학회’(현재의 대한지리학회)라는 이름으로 지리학 관련 학회가 처음 창립된 것은 1945년이고, 광복의 혼란 속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지리교사를 양성하는 지리학과가 창설되었다. 광복과 함께 최초의 학회는 탄생하였지만, 학회지 창간호가 세상에 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63년이므로 우리나라에 학술적인 지리학이 싹튼 것은 엄밀히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경제지리 전공(sohn@aks.ac.kr).

1) 형기주, 「경제지리학, 혼돈과 도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1호(1998), 7쪽.

말해 44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유럽의 전통 있는 지리학회들의 역사가 적어도 1세기 안팎 또는 그 이상의 긴 역사성을 지닌 것에 비한다면 일천하기 짝이 없는 짧은 역사이다.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세계 지리학계의 올림픽이라 할만한 ‘세계지리학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외국의 관련 학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냈다. 학회 결성 이후 지리학자들에게는 가장 경사스럽고 자축할만한 성공적 학술행사였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지리학 발달과정 중에서도,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경제지리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회의 발달과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관련 논문, 학회지, 기록 등을 검토한 문헌연구이다. 1945년 광복을 맞는 해에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되었고, 1963년에 최초의 학술지 창간호가 나왔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감안하면서 한국에서의 경제지리학 발달과정을 네 시기(① 1945년~1960년대, ② 실증주의 접근법이 발달한 ‘70년대, ③ 다양한 철학적 접근방법이 전개된 ‘80년~‘90년대, ④ 한국경제지리학의 전문학회 창립 이후부터 새천년 시기)로 나누어 성찰하고, 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제4기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90년대 후반의 한국경제지리학회 탄생 배경과 전후 맥락을 이해하며, 창립 10주년의 역사를 맞는 한국경제지리학회 학술지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며,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리학계의 모든 학술적 논문을 망라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판단 하에 대표적 연구 논문들과 연구동향을 논했다. 아울러 ‘90년대 후반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 이후의 논문분석은 한국경제지리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II. 한국의 경제지리학 발달과 성찰

한국의 근대지리학은 1945년 대한지리학회(당시 조선지리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지리학 관련 논문은 1956년 李廷冕의 「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이 시초이다. 초기의 연구는 농업·공업지리학,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었고, 지난 60여 년간 학문의 역사도 길지 않았지만 길지 않은 역사에 비해 초기의 연구업적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연구 분야도 확대되어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노동력, 자금·자본과 더불어 유통산업, 서비스업, 교통·정보산업, 문화산업, 재활용 산업 등으로 연구영역이 다양화되었다.²⁾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지리학 발달의 단계는 그 내용과 밀도로 보아, ① 광복을 맞으며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되고 지리학이 서서히 발달한 시기인 1960년대 까지를 제1기로, ② 외국의 지리학 정보가 쉽게 유입되고 유학생 수가 늘어나 실증주의 경제지리학의 방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70년대를 제2기로, ③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위에 다양한 철학과 접근 방법을 통해 실증주의적 접근에 반대 논의가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된 80년대와, 90년대 후반 한국경제지리학회의 태동 이전까지를 제3기로, ④ 1997년 전문학회로서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된 이후부터 한국에서의 경제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새천년 시기를 제4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1945년 ~ ‘60년대

우리나라에서 학술적인 지리학 기반이 형성될 무렵, 선진 여러 나라의 지리학계에서는 훔볼트(Humboldt)—헛너(Hettner)—하트손(Hartshone)을 연결하는 전통 지리학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때였다. 전통지리학을 대신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지리, 계량지리의 등장인데 이를 신속하게 수용한 분야가 경제지리학이었다. 당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경제지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의가 뜨거웠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 개발된 이론으로서의 입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논문들은 대체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미시이론을 공간평면으로 바꿔놓는 일이 주과제였다.³⁾

선진국의 지리학이 이러할 때 우리는 학회지 창간호(1963년)를 냈고 경제지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 분야가 대개 일본의 학계를 통해서 한 세대의 시차가 있

2) 한주성, 「전문학회 소개 칼럼: 한국경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뉴스레터》, 제94호(2007).

3) 형기주, 앞의 논문, 8쪽.

는 방법론에 매어 있었다. 1950년대~1960년대 한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금기와 경제적인 후진성, 해외 교류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전통지리 혹은 근대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지리가 매우 조금씩 소개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바로 이 무렵인 1963년에 조선지리학회(대한지리학회 전신) 학술지 창간호가 나왔고, 당시 경제지리에 전념하는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농업지리학은 지리학에서 통계자료를 이용, 지역 구분의 시도와 방법론의 개발 등에 있어서 학문적인 체계화가 가장 먼저 시도된 분야이다. 50년대에 이미 세편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일찍부터 활발히 전개된 분야이다.⁴⁾ 60년대 전반 농업지리학의 주요 주제는 농업지역 구분이었으며, 지역 확인 및 구분을 위한 지표설정이 주요과제였다. 후반부에는 특정 작물이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과의 생산, 입지, 분포, 유통을 분석한 연구와 과수농업이 전개된 과정과 과수원의 입지 분포 및 주요 수종의 전파문제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 이 밖에 정부의 산지 정책에 영향을 받아 화전민과 고령지 토지이용의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도 행해졌다.⁵⁾

2. 1970년대

1970년대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리학의 과학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점차 경제기반이 좋아짐에 따라 외국의 지리학 정보가 쉽게 유입되고 유학생 수가 늘어나 실증주의 경제지리학의 방법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동안 흥미로운 실증주의 지리학 요지는 지리적 사실 속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법칙을 활용함에 있어서 가치를 배제하고 엄밀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구사한다는 점에 있었다.

이같은 신지리학의 우리나라 도입은 시간 격차도 문제였지만 과학철학의 기초가 부실한 바탕에 계량기법의 불충분한 이해로 몇 가지 문제 현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첫째, 전통지리와 신지리간의 패러다임 변화 혼란 속에서 양자 간의 소화

4) 박삼욱, 「경제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대한민국학술원, 2002), 99~100쪽.

5) 김기혁, 「인문지리학의 연구과제」,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한울아카데미, 2001), 214~215쪽.

가 불충분한 연구가 지속된 것, 둘째, 신지리는 지역의 거시적 취급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역연구가 소홀해졌고 성과가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 셋째, 영어권의 개념이나 이론, 검증방법에 매달려 우리가 당면한 독특한 지리적 사실을 우리의 방법론을 개발해 탐구하지 못한 점, 넷째, 패러다임의 혼란이 학교 지리교육의 혼란에 미친 영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⁶⁾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추세로 공업과 도시부문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대신 농업지리 연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1970년대의 중반까지 농업지리학 연구는 농업 지역구분, 낙농, 수전 농업, 산지농업, 원예농업, 대도시 근교농업, 특정 작물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 농업지역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까지 농업지역 분류는 주요 주제였으며, 낙농, 고랭지 농업, 농업에 대한 역사 지리적 접근 등의 추세를 보였지만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강조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⁷⁾

1975년 이후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비교하면 두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계량적 분석에 의한 모형화 또는 개념화에서 변화과정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서찬기의 연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⁸⁾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사적 차원에서 농업공간을 연구 정리한 저서의 출판이 대표적이다.⁹⁾ 서찬기의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공간변화는 지속적으로 작물의 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각화가 진행되는 경우, 60년대에 다각화되었다가 70년대부터 특화 경향으로 향하는 경우 등의 3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¹⁰⁾

공업지리학의 연구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공업지리연구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 이후 공업지리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 공업성장 이상으로 증가하여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전에 비하여 분석기법도 다양화되었을

6) 형기주, 앞의 논문, 9쪽.

7) 박삼옥,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연구성과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1권 2호(1996), 161쪽.

8) 서찬기, 「한국에 있어서 농업공간의 발전유형(1960-80): 작물의 다각화도 분석」, 『지리학』, 39(1989), 1-14쪽; 서찬기, 「겸업농업의 지역분화」, 『지리학』, 27권, 1호(1992), 1-20쪽.

9) 형기주, 『농업지리학』(법문사, 1992).

10) 서찬기, 앞의 논문(1989).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3. 1980년대 ~ '90년대

패러다임 혼란의 문제점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즉, 실증주의 지리학의 맛에 익숙해질 무렵 맑스주의, 행태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제도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철학과 접근 방법을 통해 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와는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

다양한 사과의 논의가 주로 80년대 중반이후 대학원 및 대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70~80년대의 대학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틀 속에서 해외교육을 받고 귀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학생들은 정치적인 박해의 '80년의 봄'을 넘기고 중반 이후 민주화 분위기와 함께 외국문헌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동기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컴퓨터 및 인쇄와 복사시설의 발달에도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경제지리학은 도시지리학과 함께 석·박사 학위논문을 위시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들은 공업내지 기업 지리분야가 우세하였다. 실증주의 입지론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업조직론적 접근 또는 행태론적 접근이 괄목할 만했다. 독점자본주의 맥락에서 기업의 내·외적 조직 메커니즘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공간조직의 변화를 주제로 한 것들이었다.¹²⁾

또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정치, 경제적 접근이나 사회이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졌고, 경제지리학에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늘었지만 사례연구가 불충분한 미진함이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공업 이외에 서비스업, 정보산업, 사무소 입지 등 서비스 경제의 대형화에 따른 연구 선호가 높아졌다. 그리

11) 박삼욱, 앞의 논문(1996), 163쪽.

12) 이들을 요약하면, 칠판, 다공장기업의 본사 및 분공장의 입지, 둘째, 산업구조의 조정과 산업공간 조직의 변화, 셋째, 해외투자자 다국적 기업의 입지, 넷째, 첨단산업입지 및 산업지구, 다섯째,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환경 등이다. 형기주, 앞의 논문(1998), 9쪽.

고 지방화, 세계화 맥락에서 기업공간이 어떻게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형기주는 80년대 이후 발표된 많은 논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제지리학자들은 전에 비해 지역경제학자 및 도시전문가들과의 협조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 둘째, 기업조직은 독점자본주의 대기업의 소산이고 이들 의사결정과정과 입지변화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역할이므로 장차 경제공간의 연구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지리학은 경제행위와 공간(지역)행위에 관한 연구이므로 전자를 독립변수, 후자를 종속변수로 삼아 설명하며 이들의 상호성에 중점을 두되, 추구해야 할 지향 점은 공간구조, 공간과정, 공간조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경제행위는 욕망에서 출발하므로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이 착안할 점은 인간중심의 접근 또는 문화적 접근이어야 한다. 다섯째, 종래에 논의되던 ‘지역’이란 주로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에 의한 합성물로 정의되었지만, 오늘날 논의되는 ‘공간’은 인간의 지각, 사상, 의도, 기술의 실현이며, 그 속에 있는 역사적 과정이 우리 일상생활의 시공간적인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의 프로세스에 주목해야 한다.¹³⁾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지리학 연구는 그 이전의 연구 성과와 다른 두 가지 변화를 나타냈는데, 하나는 계량적 분석에 의한 개념화를 통하여 농업활동과 농업공간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려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사적 차원에서 농업공간을 연구하고자 한 시도이다.¹⁴⁾ 한국 농업공간의 이해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상업적 농업의 발달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낙농지역이 수도권으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한 낙농지역 분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¹⁵⁾

형기주는 『농업지리』(1992)에서 크게 유산으로서의 농업 공간, 형태로서의 농업 공간, 기능으로서의 농업공간으로 나누어 농업지리학의 이론과 유럽과 한국의 여

13) 위의 논문, 10쪽.

14) 박삼욱, 앞의 논문(2002), 100쪽.

15) 이학원, 「한국 낙농지역의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 28(1981), 46~65쪽.

러 사례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농업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 형태, 기능, 농업지역 형성, 지역 구조 등의 농업지리 주요 주제를 인접학문 분야의 많은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고 체계화하여 정리한 국내 최초의 농업지리학 저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밖에 1975년 이후 주의를 기울일만한 연구로는 한국 수전 농업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나¹⁶⁾, 계량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를 다룬 연구,¹⁷⁾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의 수도권 농업지역 구조의 변화를 밝힌 연구를 들 수 있다.¹⁸⁾ 손용택은 연구기간(1970~1990) 동안 수도권의 서울주변에서 농경지는 계속 감소하며, 작물결합은 단순화되고 낙농, 원예, 과수원 등은 과거 소비지 근접성을 벗어나 외측 접지를 일정기간 점거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농업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겸업활동 인구는 늘어나며, 폐농가와 폐농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농경지의 필지 세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음도 밝혔다.¹⁹⁾

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지리 연구의 세계적인 동향이 현대화, 산업화에 따른 농지소유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통 촌락에 미친 영향, 도시 발달이 농업에 미친 영향, 농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개입 및 그 영향에 대한 연구, 겸업농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²⁰⁾ 우리나라의 농업지리 연구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²¹⁾

1980년대 초까지의 우리나라 공업지리 연구는, 논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소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고, 저변확대가 충분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두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하나는 공업지리학의 다양한 분야가 국내외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져서 연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의 핵심과제

16) 이준선, 「한국 수전농업의 지역적 전개과정」, 『지리교육논집』, 22(1989), 45-68쪽.

17) 김기혁, 「한국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1).

18) 손용택, 「대도시주변 농업공간의 구조변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5).

19) 김기혁, 앞의 논문(2001), 217-218쪽.

20) 형기주, 앞의 책(1992).

21) 박삼욱, 앞의 논문(1996), 162쪽.

나 주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업의 입지변동, 지역구조 및 공업지역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새로이 부각된 주제 동향을 요약해 보면, ① 기업조직의 변화와 산업입지, ② 생산체계의 변화와 산업공간의 변화, ③ 첨단기술산업과 과학단지개발 연구, ④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경제, ⑤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변화, ⑥ 산업네트워크와 산업의 공간연계 및 산업지구, ⑦ 공업정책과 지역발전, 행태적 접근, 기업이 정신, 노동시장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 등이다.²²⁾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1980년대부터 한국에 입지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형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유형에 대한 지리학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산업의 지역적 연계구조와 네트워크는 최근 들어서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때문에 산업의 지역연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정 지역의 산업집적을 산업지구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가 행해졌는데, 이탈리아에서 중소기업이 집적하여 기업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들에 대해 마샬의 산업지구 이론을 적용한 이후 산업지구는 유연적 전문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많아졌다. 이외에도 1980년대 초 이후 새롭게 부각된 주제들은 다양하다. 기업이 정신에 대한 연구,²³⁾ 중국 경제특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²⁴⁾ 공장 자동화가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²⁵⁾ 모험자본의 공간적 투자유형,²⁶⁾ 기업부설 연구소의 분포특성,²⁷⁾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입지결정²⁸⁾ 등이 그 예이다.

22) 위의 논문, 164쪽.

23) 이정식, 「기업가 정신과 지역개발: 한국의 경우」, 『지역연구』, 3(1987), 11~20쪽.

24) 이기석·황만익·이혜은, 「중공 심천경제특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33(서울대학교 1986), 61~83쪽.

25) 양동선, 「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 광주 및 구미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사례로」, 『지리학 논총』, 25(1995), 81~102쪽.

26) 홍명표, 「한국 모험자본회사의 공간적 투자패턴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2(1993), 77~91쪽.

27) 이정연, 「기업부설연구소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4(1990), 68~85쪽.

28) 김은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23(1990), 29~58쪽.

198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지리학은 전통적인 주제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90년대 중반에 들어 세계적인 연구쟁점인 산업구조재편, 생산체제와 기업조직의 변화, 신산업지구, 산업의 연계와 지역경제, 해외투자 등의 연구들이 행해지고 국제학술지에도 상당수 논문이 게재되어 한국 공업지리학계의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깊이도 상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²⁹⁾ 1990년대 후반에 전문학회로서 한국경제지리학회(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경제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어지는 장들에서 논하기로 한다.

III.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

1. 한국경제지리학회의 태동

선진국의 경제지리학회의 발달을 보면, 미국의 *Economic Geography* 논문집은 1925년에 W. W. Atwood 교수가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대학장이 되면서 창립한 지리대학원(Graduate School of Geography) 교수들이 편집·출판한 경제지리학 중심의 학술잡지로 1년에 4번 출판되고, 일본경제지리학회(日本經濟地理學會)는 1935년에 창립되었으며 기관지인 『經濟地理學年報』은 1955년에 발간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경제학자와 경제지리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집하는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가 2001년부터 출판되어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이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이 보는 경제지리학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前史는 1986년부터 한·중·일 경제지리학자 모임인 ‘공업입지연구회’가 발단이 되었다. 이 모임은 한국인으로 당시 동국대 형기주 교수, 서울대 박삼옥 교수, 중국의 리원옌(李文彦, 사회과학원) 박사, 일본의 다케우치(竹内淳彦, 도쿄공업대학) 교수, 무라타(村田喜代治, 中央대학) 교수가 매년 세

29) 박삼옥, 앞의 논문(1996), 168쪽.

30) 한주성, 앞의 글(2007).

나라를 오가며 연구발표를 하였는데, 1991년에 이 연구회가 해체되면서 형기주 교수가 우리나라에도 경제지리학회를 창립하자고 박삼옥 교수에게 제안하였다. 그 후 한국 경제지리학의 연구 성과는 축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질적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경제지리학 전공자들은 독립된 연구모임을 갖기 위하여 1995년 가을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있는 행사 후 학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후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서울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경제지리학회 2차 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의 추천을 받아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이때 발기인 여섯 사람은 학회의 성격을 대한지리학회 경제지리학 분과위원회로 출범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학회로 창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³¹⁾ 그 뒤 경제지리학 전공자들은 전공분야의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회 창립에 대한 호응을 보여 1997년 3월 15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시청각매체센터에서 학회 창립을 위한 첫모임으로서 확대 발기인 총회를 가졌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 김종기 원장의 특별강연을 경청한 후, 학회 창립의 경과 보고, 회칙심사 및 회장단을 선출하여 비로소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되었다.³²⁾

2. 한국경제지리학회의 학술활동

한국경제지리학회는 매년 춘계 학술대회는 지방에서, 추계 학술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는 최근에 이룰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발표논문은 각 분야의 권위자가 발표하며, 토론자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학술대회 발표 요약집은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발표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며 학술진흥재단에도 보고하여 지원체제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다.³³⁾

31) 당시 이곳에 모인 학자들은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 겸 발기인으로서 6인이었다(동국대 형기주 교수, 서울대 박삼옥 교수, 황만익 교수, 서원대 한홍렬 교수, 경상대 박철홍 교수, 이화여대 최운식 교수).

32) 한주성, 앞의 글(2007).

33) 위의 글.

<표 1> 한국경제지리학회 학술대회 주관대학 및 발표논문 수

연 도	학술대회 주관 대학			
	총 계	발표 논문수	추 계	발표 논문수
1997년	동국대학교	학회 창립	동국대학교	4편
1998년	성신여자대학교	6편	동국대학교	5편
1999년	전남대학교	10편	한국지리학회	-
2000년	서원대학교	4편	서울시립대학교	5편
2001년	경상대학교	6편		4편*
2002년	부산대학교	6편	경희대학교	6편
2003년	서원대학교	6편	한국지리학회	-
2004년	충북대학교	7편	성신여자대학교	9편
2005년	동국대학교	6편	공주대학교	8편
2006년	대구대학교	10편	성신여자대학교	6편
2007년	경북대학교	9편	서울시립대학교	11월 17일 예정

주) 한주성, 앞의 글(2007).

* 대한지리학회 특별 2분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혁신 클러스터) 로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조직하여 개최하였음.

한국경제지리학회는 창립 때부터 경제지리학 관련 분야의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는데, 1997년 3월 15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시청각매체센터에서 김종기 원장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와 대책」 이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겸한 특별강 연이 있었다. 그 후 1998년 2월 27일에 동국대학교 시청각매체센터에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한영주 박사가 「IMF금융지원 체제하에서의 서울특별시의 대응방안」 을 발표하였고, 1998년 4월 2일 성신여대 수정관 다매체회의실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A. Scott 교수를 초청하여 「공업 수행의 경제 지리적 기초」 제하의 특별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2호에서 서울대학교 박삼옥 교수가 「세계지리학 연합 산업공간구조 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이변송 교수가 「토지이용 규제와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서울거주자의 통근거리 결정요인 분석」 등의 주제내용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1999 년 1월 23일에는 성신여대 수정관 다매체회의실에서 Rutgers대학 N. Smith 교수가 “Restructuring of geographical scale and new global geography of uneve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1999년 10월 9일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Witwatersrand대학 P. Bond 교수가 「세계경제위기: 남아프리카의 시각」, 국토연구원 김원배 박사가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도시지역의 재편: 한국의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2000년 3월 18일에는 국토연구원장 이정식 박사가 「세계화 시대의 지역개발전략」을 발표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는 경제현상의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항상 시의 적절하게 포럼을 개최하여 학문의 새로운 정보획득과 시야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초청강연도 이루어져 2005년 2월 23일 성신여대 수정관 제도실에서 로마대학 P. Mudo 교수가 “Studying contemporary Rome: A critical geography perspective”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에서도 ‘The dynamics of economic spaces’, ‘The geography of information society’, ‘Local development’, ‘Applied geography’ 등의 경제지리학 관련 분과에서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하였다.³⁴⁾

학회기관지인 『한국경제지리학지』는 1998년 6월 1일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ISSN)를 배정받아 그 해 6월 30일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호를 출간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2호(1999년에는 1·2호 합병 호)씩 출간하였으나 회원의 열정적인 학문연구에 부응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3호씩을, 2007년 제10권부터는 경쟁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4호를 출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는 2003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등재학술지로 발전하여 전문학회지로서 그 면모를 탈바꿈시킬 정도로 학회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기고문과 학회소식, 회원동정, 기타 소식을 전하는 《한국경제지리학회 회보》는 제5호까지 발간되고 지금은 향후 도약을 위해 잠시 정간 중인데, 학회소식은 학회지 뒤쪽에 게재하고 있다. 회보 기고문은 제2호(1998년 6월)에 한주성 교수의 「경제지리학 연구분야의 무한성과 전문화」, 제3호(1998년 12월)에는 곽철홍 교수의 「벨지움의 경제지리학 연구동향」, 제4호(1999년 6월)에는 최운식 교수의 「새로운 세계를 맞으며」, 제5호(2000년 11월)에는 황만익 교수의 「중국 신장 지역의 토지이용과 변화」가 발표되었다.³⁵⁾

34) 위의 글.

35) 위의 글.

IV. 『한국경제지리학회지』 논문분석과 연구동향

1997년에 창립되었고, 1998년부터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한국경제지리학회는 1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지리학 학자들이 주도하는 연구산 실이며 동학인들이 모여드는 명실공히 학술단체이다. 창간호로부터 2007년 6월호에 이르기까지 20권의 학술지를 발행했으며, 총 16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들 게재 논문들을 연구 대상지역별, 경제지리학 분류 기준과 주제개념별로 나누어 계수화 한 후, 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학회지의 발간 횟수와 연구지역

1997년에 창립된 한국경제지리학회는 현재까지 10년 동안 167편의 논문을 생산하여 20권의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창간호부터 2003년까지는 6월과 12월 연 2회를 발행했으나 2003년 한해에 이미 22편의 논문이 선별되어 게재됨으로써 연 학술지 볼륨이 489쪽에 이르는 등 중호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지리학회 회원 수의 증가와 투고 원고가 많아진 결과이다. 그리하여 2003년부터는 4월, 8월, 12월 등 3회에 걸쳐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가 2006년까지 지속되었고, 2007년부터는 또 한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한 호를 더욱 늘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 계획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회원들이 논문 투고가 증대함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논문을 분기별로 발간되는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제지리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167편의 논문 가운데 연구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외국을 연구대상 또는 사례지역으로 한 논문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성 연구와³⁶⁾ 국제 분업의 재구조화를 다룬 연구,³⁷⁾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혁신클러스터의 대응 연

36) 문남철,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2003), 355~375쪽.

37) 문남철,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재구조화: 직접투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

구,38)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개발기구를 사례로 한 연구39)를 비롯하여, 벨지움,40) 베트남,41) EU,42) 일본의 청년실업 및 노동정책을 연구한 논문과43) 역시 일본의 시가현 나가하마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다룬 논문,44) 그리고 일본의 보양관광온천의 지역 특성화 관광에 관한 연구,45)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를 사례로 한 연구,46) 이밖에 독일,47) 영국,48) 프랑스에 관한 연구,49) 1990년 대의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연구,50) 중국 경제개발구의 설치와 운영시

권 3호(2005), 367~382쪽.

- 38) 이정협·김형주,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혁신클러스터의 대응」,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2005), 383~404쪽.
- 39) 이철우·이종호·김명엽,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개발기구(ERVET)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1~20쪽.
- 40) 곽철홍, 「벨지움 Liege 지방의 산업단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79~98쪽.
- 41) 이승철,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대베트남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2007), 93~115쪽.
- 42) 정성훈, 「유럽연합(EU)내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권 1·2호(1999), 145~168쪽; 문남철, 「EU의 지역적 확대와 자동차 생산체계의 지리적 재구조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2006), 243~260쪽; 문남철, 「EU확대와 노동이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2007), 182~196쪽; 변필성,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201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2007), 81~91쪽.
- 43) Kamiya Hiroo, 「Youth unemployment and labor policy in contemporary Japan」,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2006), 396~409쪽.
- 44) 신동호,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본 시가현(滋賀縣) 나가하마 이야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2006a), 431~440쪽.
- 45) 우연섭, 「일본 국민보양온천의 지역 특성화 관광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2005), 301~314쪽.
- 46) 이승철, 「혁신 클러스터에서 일괄지원 시스템으로써의 중심연계기관의 역할: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2004), 45~64쪽.
- 47) 신동호,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지역혁신체제: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2004), 385~406쪽; 신동호, 「독일 루르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연구: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2006b), 167~180쪽; 안영진, 「독일의 실업문제와 지역노동시장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권 1·2호(1999), 83~102쪽.
- 48) 최영출, 「영국 케임브리지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2006), 61~80쪽.
- 49) 배준구,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2006), 81~96쪽.
- 50) 이원호, 「1990년대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2005), 285~299쪽.

<표 2> 『한국경제지리학회지』 게재논문의 주제개념 출현 빈도
(1998년 창간호~2007년 6월호)

구분		1998 (14)	1999 (9)	2000 (8)	2001 (9)	2002 (14)	2003 (22)	2004 (28)	2005 (25)	2006 (25)	2007 (13)	계 (167)
연구 지역	한국전체		2	1					1		1	5
	수도권	2			1		2	1		4		10
	지방	1	1	4	4	5	5	9	2	11	4	46
	외국	4	2	2		1	4	3	5	5	2	28
농업 지리	농협, 에메니티, 토지이용	1				1		3	1			6
공업 지리	산업화단지외 제조업	1		1			3					5
	의류 및 전통공업	1		1			1					3
	다국적기업과 지역 투자	1	1			2	1	1			1	7
	공업구조와 입지 및 정책	1	3	1	2	5		2	1			15
	하청거래 네트워크				1		1		2	1	1	6
	혁신체제 및 벤처				1	2	2	5	3	5	1	19
	지역연계 및 클러스터				2		2	3	3	2	2	14
산학연계와 지역발전				1		2	1	2		1	7	
상업 지리	정기시 재래시			1				1		1		3
	소매업 경영과 입지	1						1	1			3
	사무 입지와 사업서비스	1				1						2
서비스 유통 정보화	서비스 경제화와 유통구조	1							1	1		3
	물류 및 국제교역	1		1		1			1	1		5
	금융 및 부동산		1	1			2	1				5
	정보화		1				1					2
교통 지리	지역연계망과 기업네트워크			1					1			2
	대중교통 항만 및 도로	1								2	1	6
기타	공간 조직 및 신도시화					1	2					3
	관광 문화 환경	3				3	2	1	4	6	1	20
	접경지역 연구 기타	1	2	1	2			10	7	3	4	30
	의료 실업 및 노동 도시 정치	1	1	1		1	1			1	2	8

주) 1998년 창간호부터 2007년 6월호까지 20권의 논문 167편을 분석. 논문 한편에서 여러 주제개념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논문 수와 출현빈도 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스텝에 관한 연구,⁵¹⁾ 경제개혁 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역동성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⁵²⁾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향진기업(鄉鎮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에

51) 안재섭, 「중국 경제개발구의 설치와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1호 (2002), 89~104쪽.

52) 이원호,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역동성과 지역경제발전: 지역격차변화 이해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2호(2000), 23~42쪽.

대한 연구,⁵³⁾ 미국 대학과 기업간 연계와 관련한 연구⁵⁴⁾ 등이다. 동아시아, 이탈리아, 벨지움, 베트남, EU,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나라들은 아시아권 국가들 또는 지역 및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 깊은 미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EU 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장 빈번한 연구대상이 된 나라들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다.

국내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더욱 많으나, 우리나라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했거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최근에 이를수록 지방을 사례로 한 연구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마도 지방자치체의 활성화와 경제 지리적 연구 테마의 다양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들 중에서도 문화적 요소와 관광적 요소를 함께 지닌 각종 ‘지방 축제’와 ‘문화 도시’ ‘문화 지역’에 관한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벤트 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⁵⁵⁾ 테마파크 에버랜드의 혁신시스템,⁵⁶⁾ 곡성 심청축제를 사례로 한 방문자 만족에 관한 연구,⁵⁷⁾ 문화관광 축제의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⁵⁸⁾ 봉화군 춘양목 파크를 사례로 한 연구,⁵⁹⁾ 향토자원 상품화와 관련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관한 연구,⁶⁰⁾ 함평 나비축제를 사례로 문화관광축제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살핀 연구,⁶¹⁾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연구,⁶²⁾ 인천 남구를

-
- 53) 여필순·이철우,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향진기업(鄉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1998), 43~70쪽.
 - 54) 김형주, 「미국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51~70쪽.
 - 55) 추명희, 「이벤트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1998), 103~124쪽.
 - 56) 최정수, 「테마파크 에버랜드의 혁신시스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2002), 277~292쪽.
 - 57) 이정록·안중현, 「지역축제의 방문자 만족에 관한 연구: 곡성 심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2004), 503~518쪽.
 - 58) 이정록, 「문화관광축제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2005), 431~445쪽.
 - 59) 손용택, 「삼립자원의 시장화 성쇠: 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2005), 447~463쪽.
 - 60) 변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상품화의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2006), 7~22쪽.
 - 61) 이정록, 「문화관광축제의 성립과 전개과정: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2006), 197~210쪽.
 - 62) 신동호, 앞의 논문(2006a), 431~440쪽.

사례로 한 문화도시 충족조건 연구,⁶³⁾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농촌관광 만들기 연구,⁶⁴⁾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⁶⁵⁾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연구,⁶⁶⁾ 제4회 함평나비축제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⁶⁷⁾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발전과정과 연구동향,⁶⁸⁾ 문화관광 축제 개최지의 서비스 품질 및 장소애착심과 충성도에 관한 인과관계 연구⁶⁹⁾ 등 다양하다.

2. 농업지리와 공업지리

우리나라 경제에서 농업 부문의 비중이 약화되고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았듯이 1998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창간호 이후 현재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농업 관련 논문 수는 공업지리나 상업지리 또는 서비스 및 유통지리 분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을 『한국경제지리학회지』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1945년 대한지리학회(당시는 조선지리학회)가 창립될 무렵만 하더라도 경제지리에서 농업지리 관련 논문들이 가장 먼저 과학적 체제를 갖추고 발표되었다.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시기였다. 1963년부터 대한지리학회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게재된 논문 가운데 농업지리 분야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에 비해 공업지리 관련 논문의 수와 공업에 대한 관심은 경제개발 계획의 진행과 함께 대단히 고무적이었으며, 그것은 논문의 편수와 연구주제의 다양화로 나

- 63) 김은경·변병설, 「문화도시의 충족조건: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2006), 441~458쪽.
- 64) 안중현,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2007), 197~210쪽.
- 65) 우찬복, 「웹사이트 평가지표에 기초한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193~210쪽.
- 66) 최정수,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233~248쪽.
- 67) 이정록, 「함평나비축제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 제4회 축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2003), 339~354쪽.
- 68) 안영진,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2006), 123~137쪽.
- 69) 김시중,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의 서비스 품질 및 장소애착심과 충성도에 관한 인과관계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2005), 315~330쪽.

타났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게재논문의 주제개념 출현빈도를 보아도 농업지리에 비하면 공업지리가 무려 약 15배나 많은 편이다. 농업지리 관련 논문을 보면, 총 167편의 논문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구매 및 거래관계를 밝힌 연구,⁷⁰⁾ 농촌관광마을 만들기,⁷¹⁾ 지역금융시장에서의 지역농협의 역할에 관한 연구,⁷²⁾ 여주의 경제지리 변화,⁷³⁾ 농촌의 어메니티 인식,⁷⁴⁾ 목민심서의 농업내용을 밝힌 연구⁷⁵⁾와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⁷⁶⁾ 등 7편(4.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7편 가운데 두세 편을 제외하면 순수 농업지리 관련 논문 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복합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공업지리에서는 산업입지와 관련한 논문, 혁신체제 및 벤처 관련 논문,⁷⁷⁾

-
- 70) 이종호·윤세영, 「대도시 유통업체의 농식품구매 및 거래관계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131~152쪽.
- 71) 안중현, 앞의 논문, 197~210쪽.
- 72) 최진배·김태훈·민재현,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2004), 433~460쪽.
- 73) 손용택, 「여주의 경제지리 변화: 토지이용, 주민생활실태,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2004), 283~296쪽.
- 74) 조영국·박창석·전영욱, 2002,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2002), 157~174쪽.
- 75) 손용택,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171~188쪽.
- 76) 최운식,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1998), 5~20쪽.
- 77) 관련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선배,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1호(2001), 61~76쪽; 최정수, 앞의 논문, 277~292쪽; 이승철, 앞의 논문, 45~64쪽; 김선배, 「도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기능적 관점의 지역발전 이론과 사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2004), 345~358쪽; 신동호, 앞의 논문(2004), 385~406쪽; 신동호, 앞의 논문(2006b), 167~180쪽; 최영출, 앞의 논문, 61~80쪽; 배준구, 앞의 논문, 81~96쪽; 이정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지역발전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2007), 223~238쪽; 이철우·이종호·김명엽, 앞의 논문, 1~20쪽; 이종호, 「지역혁신체제 잠재성 향상의 조건: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61~78쪽; 남기범, 「지역산업군집의 혁신환경: 대전 생물벤처산업과 부천 조립금속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1~16쪽; 정준호·김선배, 「우리나라 산업집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조 분석: 한국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17~30쪽; 이정협·김형주, 앞의 논문, 383~404쪽; 최지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2호(2000), 82~96쪽; 김학훈, 「충북지역 벤처산업의 입지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1호(2002), 49~68쪽; 이철우·이종호,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2004), 1~28쪽; 최홍봉·윤성민, 「벤처기업의 지역적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연계 관련 주제개념들의 출현 빈도가 높다. 결국, 근래의 공업지리 분야를 주도하는 개념은 입지, 혁신, 클러스터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참여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중요시하고 추진하는 정책 개념 중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경제지리학의 학문적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상업지리와 서비스, 유통, 정보화

우리나라의 경제지리학 발달을 살펴보면, 공업지리 분야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과 유통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에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비중이 커질 분야로 예측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발달 순서가, 과거의 일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쳐 오늘날에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 더욱 명확한 진단일 것이다. 주제개념 출현 빈도로 보면 어느 한 가지가 두드러져 탁월하다기 보다는 논문의 주요 주제와 개념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통구조, 물류, 금융, 부동산, 지역연계망으로서의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인 주요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업지리 분야에서는 쇠락하는 부문과 중요시 되는 부문이 교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기시나 재래시장 관련주제는 전자에, 사무입지 및 사업자서비스 관련 부문은 요즘 매우 중요시되는 후자에 속하는 개념들이다.⁷⁸⁾ 소매업 경영과 입지와 관련한 내용은 상업지리에서 전통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되는 개념이라 할만하다.

특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2004), 29~44쪽; 남기범, 「서울 산업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2003), 45~60쪽.

78) 사무입지 및 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논문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안영진, 「사무입지에 관한 도시·경제지리학적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2002), 229~248쪽; 류주현, 「서울시 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2005), 337~350쪽; 정병순·박래현, 「대도시 사업서비스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2005), 195~216쪽.

4. 교통지리 및 기타

그 중요성과 대중성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자들의 연구 관심도에서 더욱 많이 회자되어야 할 분야가 교통지리라고 할 수 있다. 항공교통과 공항, 해운 교통과 항만,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교통과 고속버스, 지하철, 자동차 등 육로교통 등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구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지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관련 논문들은 지하철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이용자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 항만교통에 관한 연구, 항공교통에 관한 연구 등이 소수 발표되고 있을 뿐이다.

관광과 문화, 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화와 맞물려 국내적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체에서는 지방의 홍보와 이미지화를 위해 이들 지방의 상징물과 로고를 만들어 이미지화 하여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일에 경주하고 있다. 인류의 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환경하에 추구하는 것이 관광, 문화, 쾌적한 환경 등의 주제와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주제 및 개념에 대해서는 경제지리학자들 대부분이 많은 관심들을 공통적으로 기울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관심분야가 발달된 의학과 의료시설, 실업과 노동 및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지리학에서 채택되어 연구되는 논문주제 및 주요개념으로서의 출현 빈도는 괄목할만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지리학 연구 범위의 확대와 다양화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질 주제인 동시에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주제의 다양화와 연구 주제 범위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주목받을 만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금숙의 연구주제와 개념들을 유심히 보면 그 다양함에 주목할 만하고, 왕성한 논문생산에 놀랄만하다. 이를테면, 교통지리와 관련하여 지하철, 카토그램 기법을 통한 시간거리 접근성 공간분석,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통행패턴 행태 연구, 의료지리로서 의료서비스 시설 입지, 전문과목별 개원의원 공간분포 연구, 문화산업으로서의 음반 산업의 입지, 도시 삶의 질에 대한 척도로서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 복지의 잠재력 지역 차

연구, 복촌의 창의적 소매업 연구, 그밖에도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경제지리 연구 주제들로서 국제교역흐름의 변화, 소매 유통업 입지와 소비자 이동행태, 출판물류센터 입지 등 실로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두루 섭렵하며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⁷⁹⁾

한편 안영진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양자간의 교류 협력 방안, 신입생 특성과 취학권, 지식 및 기술이전과 지역발전,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등에 대한 수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만의 일정한 연구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⁸⁰⁾ 이밖에도 문남철은 동아시아 지역과 EU에 관한 해외 지역권 범위의 연구를,⁸¹⁾ 신동호는 일본과 독일 등에 대한 해외지역 연구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⁸²⁾

- 79) 이금숙 교수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범위의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금숙, 「지하철 접근성 증가의 공간적 파급효과 산출모형 개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1호(1998), 137~150쪽; 이금숙, 「의료서비스시설 입지문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1998), 71~84쪽; 이금숙, 「세계화 경제에서 국제교역흐름의 변화: 기업내 교역의 증가와 그의 국제교역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1호(2000); 김유미·이금숙, 「문화산업의 입지적 특성분석: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1호(2001), 37~60쪽; 현기순·이금숙, 「소매 유통업체의 입지적 특성과 소비자 이동 행태에 대한 분석: 제주도 서귀포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2004), 97~115쪽; 최윤정·이금숙, 「한국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 복지적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91~106쪽; 이금숙, 「출판물류센터 입지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2005), 351~366쪽; 이경옥·이금숙, 「문화경제의 발현과 확산의 공간적 특징: 복촌의 창의적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2006), 23~38쪽; 김소연·이금숙, 「시간거리 접근성 카토그램 제작 및 접근성 공간구조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2006), 149~166쪽. 이금숙·박중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2006), 379~395쪽; 박중수·이금숙, 「대용량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행 패턴 탐사와 통행 행태의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2007), 44~63쪽; 서위연·이금숙, 「진료 전문과목별 개원의원의 공간적 분포 특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2007), 153~166쪽.
- 80)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안영진,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2007), 64~80쪽; 안영진,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2005), 71~90쪽; 안영진,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2004), 481~502쪽; 안영진,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과 지역발전: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2003), 171~192쪽; 안영진,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2호(2001), 37~56쪽.
- 81) 문남철, 앞의 논문(2003), 355~376쪽; 문남철, 앞의 논문(2005), 367~382쪽; 문남철, 앞의 논문(2006), 243~260쪽; 문남철, 앞의 논문(2007), 182~196쪽.
- 82) 신동호, 앞의 논문(2004), 385~406쪽; 신동호, 앞의 논문(2006a), 431~440쪽; 신동호, 앞의 논문

V. 맺음말

피터 고울드(Peter Gould)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과학의 역사는 사려깊은 실패의 역사”가 거듭 되풀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시대의 전위(前衛)는 다음 시대의 후위(後衛)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자 헤겔(Hegel)이 그 시대에 관해서 언급한 것처럼, “사상(思想)이란 전시대의 사고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지만 얼마 안가서 그것 자체가 억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개념을 포장한 끈은 완전히 흘쳐 단단히 매지 말고 풀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제지리학은 경험주의, 실증주의, 반실증주의가 얽혀있는 패러다임의 혼돈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반실증주의를 전위로, 실증주의를 후위로 보아야 하기에는 실증주의로부터의 해방이 너무도 불완전하고, “사려 깊은 실패의 역사”로 보기에 우리의 지리학이 아직은 어느 패러다임에도 깊은 성찰이 없었음을 어느 원로 지리학자는 지적한 바 있다. 경제지리학계는 이와 같은 혼돈을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67편의 논문 중 공업 분야가 약 40.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역개발 분야가 약 13.0%, 유통분야와 문화산업 분야가 약 8.0%, 관광분야가 6.0%의 순으로 2·3차 산업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학술지 논문을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체제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되고 이듬해부터 『한국경제지리학회지』가 창간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지리학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경제지리학 연구자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변화의 모습을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지리학이 이처럼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21세기의 연구방향을 잡고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연과 인문의 통합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리학의 오랜 전통중에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증시해 왔다. 지리학의 장점은

인문환경을 자연을 통해 조망할 수 있고, 반대로 자연환경을 인문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합과학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태환경의 보전과 산업화의 문제라든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친환경적 공간 관리 등에 자연·인간의 통합적 시각은 필수적 요소이다.

둘째, 학제적인 연구가 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리학은 학제간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지식을 터득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학문이다. 각자 본인들의 탄탄한 전공지식의 바탕위에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경제학 등 인접과학과의 협력을 통한 신지식을 창출하고 활용범위를 넓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해외지역과 북한지역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경험과 사례는 국토 각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해외지역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인데,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완성된 국토공간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 연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북한지역 연구와 분단현실 하에서의 협력과 통일방안에 대한 지리적 접근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가적 민족적 사명을 띠고도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적 지리학 이론과 모델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급속히 성장하였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대의 한국지리학 연구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외국에서 받아들인 이론과 경험을 접목하여 한국적 지리학 연구방법 이론과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경제지리학이 유용하게 활용되어 국토의 환경과 자원관리, 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곽철홍, 「벨지움 Liege지방의 산업단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79-98쪽.

- 김기혁, 「인문지리학의 연구과제」.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214~215쪽.
- 김기혁, 「한국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선배, 「도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기능적 관점의 지역발전 이론과 사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 2004, 345~358쪽.
- 김선배,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1호, 2001, 61~76쪽.
- 김소연·이금숙, 「시간거리 접근성 카토그램 제작 및 접근성 공간구조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 2006, 149~166쪽.
- 김시중,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의 서비스 품질 및 장소애착심과 충성도에 관한 인과관계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315~330쪽.
- 김윤미·이금숙, 「문화산업의 입지적 특성분석: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1호, 2001, 37~60쪽.
- 김은경·변병설, 「문화도시의 충족조건: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 2006, 441~458쪽.
- 김은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23, 1990, 29~58쪽.
- 김학훈, 「충북지역 벤처산업의 입지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1호, 2002, 49~68쪽.
- 김형주, 「미국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51~70쪽.
- 남기범, 「서울 산업집적지 발전의 두 유형: 동대문시장과 서울벤처벨리의 산업집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제도화 특성에 대한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 2003, 45~60쪽.
- 남기범, 「지역산업군집의 혁신환경: 대전 생물벤처산업과 부천 조립금속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1~16쪽.
- 류주현, 「서울시 사업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337~350쪽.
- 문남철,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재구조화: 직접투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367~382쪽.
- 문남철,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 2003, 355~375쪽.
- 문남철, 「EU의 지역적 확대와 자동차 생산체계의 지리적 재구조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 2006, 243~260쪽.
- 문남철, 「EU 확대와 노동이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 2007, 182~196쪽.

- 박삼옥, 「경제지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인문지리학』. 서울: 대한민국학술원, 2002.
- 박삼옥,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연구성과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1권 2호, 1996.
- 박종수·이금숙, 「대용량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행 패턴 탐사와 통행 행태의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44~63쪽.
- 배준구,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 2006, 81~96쪽.
- 변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상품화의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 2006, 7~22쪽.
- 변필성,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201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81~91쪽.
- 서위연·이금숙, 「진료 전문과목별 개원 의원의 공간적 분포 특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 2007, 153~166쪽.
- 서찬기, 「겸업농업의 지역분화」. 『지리학』, 27권, 1호, 1992, 1~20쪽.
- 서찬기, 「한국에 있어서 농업공간의 발전유형(1960~80): 작물의 다각화도 분석」. 『지리학』, 39, 1989, 1~14쪽.
- 손용택, 「대도시 주변 농업공간의 구조변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손용택,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171~188쪽.
- 손용택, 「삼립자원의 시장화 성쇠: 봉화군 춘양목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447~463쪽.
- 손용택, 「여주의 경제지리 변화: 토지이용, 주민생활실태,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2호, 2004, 283~296쪽.
- 신동호,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지역혁신체제: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 2004, 385~406쪽.
- 신동호,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본 시가현(滋賀縣) 나가하마 이야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 2006a, 431~440쪽.
- 신동호, 「독일 루르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거버넌스 연구: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 2006b, 167~180쪽.
- 안영진,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 2004, 481~502쪽.
- 안영진,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과 지역발전: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171~192쪽.

- 안영진,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64~80쪽.
- 안영진, 「독일의 실업문제와 지역노동시장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권 1·2호, 1999, 83~102쪽.
- 안영진,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 2006, 123~137쪽.
- 안영진, 「사무입지에 관한 도시·경제지리학적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 2002, 229~248쪽.
- 안영진,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권 2호, 2001, 37~56쪽.
- 안영진,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71~90쪽.
- 안재섭, 「중국 경제개발구의 설치와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1호, 2002, 89~104쪽.
- 안중현,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 2007, 197~210쪽.
- 양동선, 「공장자동화가 지역노동시장의 노동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 광주 및 구미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을 사례로」. 『지리학 논총』, 25, 1995, 81~102쪽.
- 여필순·이철우,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향진기업(鄉鎮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 1998, 43~70쪽.
- 우연섭, 「일본 국민보양온천의 지역 특성화 관광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301~314쪽.
- 우찬복, 「웹사이트 평가지표에 기초한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193~210쪽.
- 이경옥·이금숙, 「문화경제의 발전과 확산의 공간적 특징: 북촌의 창의적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 2006, 23~38쪽.
- 이금숙, 「의료서비스시설 입지문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 1998, 71~84쪽.
- 이금숙, 「출판물류센터 입지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351~366쪽.
- 이금숙, 1998, 「지하철 접근성 증가의 공간적 파급효과 산출모형 개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1호, 1998, 137~150쪽.
- 이금숙, 「세계화 경제에서 국제교역흐름의 변화: 기업내 교역의 증가와 그의 국제교역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1호, 2000.
- 이금숙·박중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 2006, 379~395쪽.

- 이기석·황만익·이혜은, 「중공 심천경제특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33(서울대학교 1986, 61~83쪽.
- 이승철,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대베트남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 2007, 93~115쪽.
- 이승철, 「혁신 클러스터에서 일괄지원 시스템으로써의 중심연계기관의 역할: 일본 카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 2004, 45~64쪽.
- 이원호, 「1990년대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285~299쪽.
- 이원호,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노동시장 역동성과 지역경제발전: 지역격차변화 이해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2호, 2000, 23~42쪽.
- 이정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지역발전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2호, 2007, 223~238쪽.
- 이정록, 「문화관광축제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431~445쪽.
- 이정록, 「문화관광축제의 성립과 전개과정: 함평나비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2호, 2006, 197~210쪽.
- 이정록, 「함평나비축제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 제4회 축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2호, 2003, 339~354쪽.
- 이정록·안종현, 「지역축제의 방문자 만족에 관한 연구: 곡성 심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 2004, 503~518쪽.
- 이정식, 「기업가 정신과 지역개발: 한국의 경우」. 『지역연구』, 3, 1987, 11~20쪽.
- 이정연, 「기업부설연구소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4, 1990, 68~85쪽.
- 이정협·김형주,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대응」.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3호, 2005, 383~404쪽.
- 이종호, 「지역혁신체제 잠재성 향상의 조건: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61~78쪽.
- 이종호·윤세영, 「대도시 유통업체의 농식품구매 및 거래관계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131~152쪽.
- 이준선, 「한국 수전농업의 지역적 전개과정」. 『지리교육논집』 22, 1989, 45~68쪽.
- 이철우·이종호,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 2004, 1~28쪽.
- 이철우·이종호·김명엽,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 지역개발기구(ERVET)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1~20쪽.
- 이학원, 「한국 낙농지역의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 28, 1981, 46~65쪽.
- 정병순·박래현, 「대도시 사업서비스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2호, 2005, 195~216쪽.
- 정성훈, 「유럽연합(EU)내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권 1·2호, 1999, 145~168쪽.
- 정준호·김선배, 「우리나라 산업집적의 공간적 패턴과 구조 분석: 한국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17~30쪽.
- 조영국·박창석·전영욱, 2002,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 2002, 157~174쪽.
- 최영출, 「영국 케임브리지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1호, 2006, 61~80쪽.
- 최운식,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 1998, 5~20쪽.
- 최윤정·이금숙, 「한국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 복지적 기회 잠재력의 지역적 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권 1호, 2005, 91~106쪽.
- 최정수,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003, 233~248쪽.
- 최정수, 「테마파크 에버랜드의 혁신시스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권 2호, 2002, 277~292쪽.
- 최지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권 2호, 2000, 82~96쪽.
- 최진배·김태훈·민재현,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3호, 2004, 433~460쪽.
- 최홍봉·윤성민,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 2004, 29~44쪽.
- 추명희, 「이벤트관광의 성장과정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2호, 1998, 103~124쪽.
- 한주성, 「전문학회 소개 칼럼: 한국경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뉴스레터』 제94호, 2007.
- 현기순·이금숙, 「소매 유통업체의 입지적 특성과 소비자 이동 행태에 대한 분석: 제주도 서귀포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 2004, 97~115쪽.
- 형기주, 「경제지리학, 혼돈과 도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권 1호, 1998, 7쪽.
- 형기주, 『농업지리학』. 서울: 법문사, 1992.
- 홍명표, 「한국 모험자본회사의 공간적 투자패턴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2, 1993, 77~91쪽.

Kamiya Hiroo, 『Youth unemployment and labor policy in contemporary Japan』.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권 3호, 2006, 396~409쪽.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광복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지리학 발달과 연구동향을 살핀 문헌연구이다. 역동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지리학은, ① 1945년 조선지리학회(현 대한지리학회) 창립 이후 서서히 학술적 뿌리를 내린 60년대, ② 실증주의 방법론이 전개된 70년대, ③ 다양한 철학적 기초위에 인간주의 등 여러 방법론이 시도된 80년대와 90년대, ④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 이후 경제지리학의 성장과 세계화로 접어든 새천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지리학은 1956년 李廷冕의 「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이 시초이다. 초기 연구는 농업·공업지리학,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 후 경제발전에 따라 연구 분야도 확대되어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노동력, 자금·자본과 더불어 유통산업, 서비스업, 교통·정보산업, 문화산업, 지역의 혁신체제, 산업집적 등으로 연구영역이 다양화되었다.

경제지리학의 21세기의 연구과제는 자연과 인문의 통합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일, 학제적인 연구가 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일, 해외지역과 북한지역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 한국적 지리학 연구방법 이론과 모델을 정립하기위해 노력하는 일 등이다.

● 투고일 : 2007. 8. 9.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조선지리학회(Chosun Geographical Society), 실증주의 방법론(the method of positive study), 인간주의 방법론(the method of humanistic study), 한국경제지리학회(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in Korea), 자연-인문 통합적 연구(the integration studies between natural and human), 해외와 북한지역 연구(the concerns about geography in overseas and North Korea), 한국적 이론모델 정립(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models about Korean geography study)